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낭만항구
ROMANTIC PORT MOKPO

목포 시정소식

2019년 12월 Vol.78

목포시 브랜드 슬로건



목포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낭만항구’는 목포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감성을 상징하며,
해양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포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매력적인 목포시 브랜드



전국최초 맛의 도시 목포

전국 최초로 ‘맛의 도시’를 선포한 도시답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맛의 도시’로 가꾸어 가고 있다.



지붕없는 박물관 근대역사문화도시 목포

도시 전체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목포는 근대역사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도시다.



전국 최초 명칭 문화예술의 도시 예향목포

전국 최초로 ‘예향(藝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목포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많은 예술인을 배출하였고,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도시 전체 국제슬로시티 목포

가장 한국적이고 목포다운 콘텐츠로 국내 16번째 국제슬로시티가 된 목포의 무대는 이제 전 세계다.

CONTENTS



- 04** 기획특집
목포 3대 미래 전략산업
목포에 민간투자 물려온다
신·구도심 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목포

- 16** 목포의 멋
목포가을페스티벌, 예향 목포를 뽐내다

- 19** 목포 더하기+
시정소식
의정소식
우리동네소식

- 28** 통(通)하는 목포
목포사랑운동 실천 이야기
정보마당
참여마당



발행처 목포시 편집인 공보과 발행일 2019년 12월
주소 목포시 양율로 203 (우)58613 전화 061-270-8539

목포시정소식지는 <http://www.mokpo.go.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목포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 www.facebook.com/mokpo.kr
i [instagram.com/mokpocity_story](https://www.instagram.com/mokpocity_story)
b blog.naver.com/mptour123
s story.kakao.com/ch/mokpocity

목포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산업’ 주춧돌 놓는다

(신재생 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10년 혹은 50년 후 목포는 뭘 먹고 살아야 하는가? 민선 7기 출범 초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 온 김종식 시장은 그동안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선창과 조선경기’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수산식품’ 두 축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3만 목포시민을 먹여 살릴 테마는 ‘신재생 에너지와 수산식품’에 ‘관광’을 더한 3대 미래전략산업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2020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조성’을 꼽았다.

올 한해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를 앞세워 맛의 도시 선포, 슬로시티 목포, 목포 가을 페스티벌 등 관광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목포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조성에 힘을 실으면서 민선 7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정책기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목포시는 본격적인 미래 전략산업 주춧돌을 놓기 위해 다양한 로드맵을 짜고 있다.

우선 시청 조직 내 전담 인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관련 인재 보강에 나선다. 탁월한 ‘젊은 피’를 수혈해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에는 목포권에 무려 11조원이 투입돼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전남형 일자리 3만여 개가 생겨난다.

또 목포 신항에 해상풍력 부두가 건설되고 풍력 관련 기자재 설비를 생산하는 배후단지도 개발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목포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 끝에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를 맞아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목포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목포 역사에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다.



국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쾌거'

목포 신항·대양산단 포함... 무에서 유 창조한 '한편의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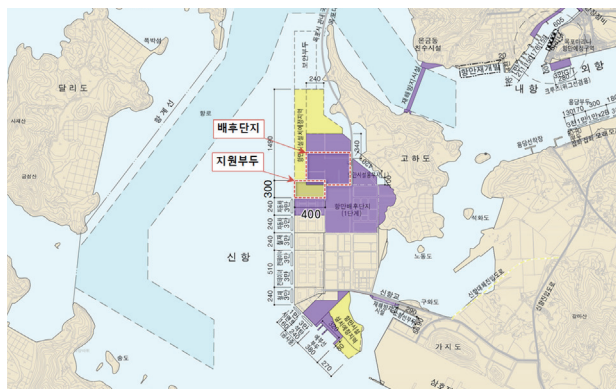
목포 신항과 대양산단이 지난 11월 6일 '국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 발표됐다. 이와 맞물려 목포 신항에 해상풍력 지원 부두 건설과 배후단지 조성사업도 서광이 비치고 있다.

당초 목포시는 이 사업을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줄곧 건의해 왔지만 걸림돌이 많았다.

이에 김영록 지사를 면담하고 해상풍력산업은 전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이자 전남형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력 어필했다. 또 전라남도가 기재부와 해수부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함께 노력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조만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목포시는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해상풍력 지원 부두 건설과 배후단지 조성'이 4차 전국 항만계획에 포함되면 목포 지역경제를 넘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배치도

어 전남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전국 최대의 '전남형 일자리'(먹거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시는 미래 전략산업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시 조직 내 전담인력이 없는 점을 감안, 이 분야에 탁월한 '젊은 피'를 수혈해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선제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빠른 결단, 특유의 집념, 끈질긴 설득' 통했다

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정 그 뒷이야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목포 대양산단과 신항이 포함되기까지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김 시장은 지난 2월 19일 '김영록 도지사와 목포시민과의 대화'를 D-데일로 삼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민과의 대화 이후 도지사와 함께 대양산단 내



김영록 도지사와 대양산단기업체 방문

➔ 6면으로 이어짐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본격 추진

총리 설득 예타 면제 확정, 전국 제1의 수산식품산업도시 ‘날개 단다’

목포 미래 먹거리 산업의 또 다른 축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2020년 정부 예산에 사업비 24억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목포시는 1,089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이낙연 총리와 정부, 정치권 등을 설득한 끝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을 받았고, 이어 전남도와 목포

시 반영비율도 3대 7에서 5대 5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도비·시비 반영률 3대 7에서
5대 5로 낮춰 예산 절감**

특히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과 함께 내년에는 생산·가공·유통·물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가 조성된다. 여기에 오는 2024년까지 서남권 수산식품 융·복합벨트(수산종합타운)를 조성해 기존 시설과 연계해 가공, 냉동·냉장시설, 판매시설 등을 구축,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게 된다.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명실공히 ‘전국 제1의 수산식품산업 도시’로 명성을 떨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종합지원단지 조감도

➡ 5면에서 이어짐

에너지 관련기업을 방문,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했다.

김 지사의 지시로 전남도 녹색연구원에서 관련 용역이 실시됐지만 용역 대상지에 아예 목포는 빠지고 나주지역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전남도 부지사와 녹색연구원장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개념으로 가야한다”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전남도 조성계획안이 9월 25일 확정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됐다.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겨 산자부까지 가는 데 성공했지만 기존 클러스터 공간 범위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경우 광역시는 반경 10km, 광역도는 20km규정에 부딪쳐 최대 고비를 맞았다. 이에 김 시장은 산자부 장관을 면담하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중간에 담당 과장까지 바뀌어 다시 처음부터 탑을 쌓는 수고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도움도 컸다.

전남 관광의 물줄기, 동부권서 서부권으로 바뀐다

<여수, 순천>

<목포, 신안>

4대 브랜드 마케팅 주효...1천만 관광객 시대 '눈앞'

목포시가 뜨고 있다.

요즘 전국서 가장 핫한 도시가 바로 목포다. 전국의 이목이 목포로 집중되고 있다. 이유가 뭘까.

‘목포 고유의, 목포만이 가진’ 장점을 브랜드 마케팅 해서 잘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민선 7기 출범 초부터 목포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포를 팔아먹겠다’고 강조해 왔다. 목포시를 팔아먹기 위한 전략으로 ‘4색(色)의 도시’를 내세웠다. 4색은 ‘항구 도시, 맛의 도시, 느린 도시(슬로시티), 문화 도시’다. 이 같은 4대 브랜드를 마케팅해서 지난 1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목포를 잘 팔아먹었다. 그 대표적 상품이 바로 맛, 슬로시티, 근대역사문화자산, 문화예술이다.

“2019년을 목포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연초 목포시장은 “기존 순천·여수 등 동부권 중심의 전남 관광의 축(큰 물줄기)을 서부로 돌려놓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목포시는 지난 4월 서울서 전국 최초로 맛의 도시를 선포했다. ‘맛’하면 전라도가 떠오르고 전라도 중에



목포항구축제 9미대첩

서도 목포를 떠올리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를 선점하고 음식관광 상품화를 추진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으뜸 맛집 100선 선정과 함께 목포 항구축제 때에는 ‘목포 9미 대첩’을 개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 지난 6월 22일에는 목포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오래갈 미래의 도시’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아 ‘슬로시티 목포’ 세계적인 브랜드를 확보했다. 지난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슬로시티 목포’ 선포식을 개최함으로써 목포시가 보유한 자원과 가치 등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해상케이블카 탑승을 기다리는 관광객들

➡ 8면으로 이어짐

대한민국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도시’ 선정

관광객, 고하도 전망대해안데크 “절경에 감탄” 찬사

이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 국내 최장거리이자 155m 국내 최고 높이에서 유달산과 다도해의 비경을 한눈에 조망하는 ‘목포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됐다.

개통 50여일 만에 입장객수 50만 명을 돌파했다. 보기 드문 기록이다.

목포시는 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 전 시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목포사랑

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교통, 환경, 안전 등 5개 분야에서 47건의 연계사업을 추진했다.

케이블카 개통과 맞물려 자연절경이 수려한 고하도를 중심으로 고하도 전망대와 해안 데크가 조성됐다. 고하도 전망대는 1층(커피전문점), 2층~5층은 고하도 전망 및 전시테마 공간으로 꾸며졌다.

또 고하도 해안선을 따라 총 연장 1080m에 폭 1.8m로 조성된 해안 데크로드는 절경을 감상하기 안성맞춤이다. 특히 포토 존인 개선장군 이순신 동

상과 용머리는 인기가 높다.

최근 들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목포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한 이들 관광시설 구축이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는 평가까지 나

각종 공모사업 선정 내역

- 문체부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공모 수상
- 2019 한국관광혁신대상 콘텐츠 최우수상 수상
- 2019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최우수 부스운영상 수상
- 2019 한국여행업 협회 여행사 친화적 지자체 수상
- 2019 제5회 트래블아이 어워즈 관광수용태세(음식부분) 최우수상

오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여행협회가 뽑은 ‘2019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도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밖에도 한국관광혁신대상 콘텐츠 최우수상 수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목포가 뜬다. 목포가 뜨겁다”

목포시가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떠오르면서 이들 핫 플레이스를 찾는 관광객들로 목포가 뜨고 있다.

그동안 목포에서 촬영된 크고 작은 드라마와 영화, 방송프로그램은 대략 80여 편.

이 가운데 영화 ‘롱 리브 더 킹’, ‘뜨거운 피’,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 등이 가장 최근에 목포에서 촬영됐다.

먼저 목포가 영화 촬영지로 인기를 얻게 된 건 2017년 12월에 개봉된 영화 ‘1987’ 덕분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드라마·영화 등 80여 편 촬영

市 미디어 마케팅 전담 팀 신설 “괄목 성과”

목포시는 영화 1987 촬영지인 서산동 ‘연희네 슈퍼’를 촬영당시의 모습으로 리모델링한데 이어 이를 관광 상품화시켜 연간 2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목포를 주 무대로 촬영한 영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은 우연한 사건으로 일약 시민 영웅이 된 거대 조직 보스 ‘장세출’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세상

을 바꾸기 위해 펼치는 통쾌한 역전극을 그린 작품이다. 목포에서 촬영된 80%분량 가운데 목포대교 버스 추락신이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또 tvN을 통해 방영된 드라마 ‘호텔 델루나’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배우 여진구가 주연한 작품으로, 시청자들의 인기를 누렸다. 목포 근대역사관 1관이 주인공들의 주요 스토리 전개 장소인 호텔로 설정돼 촬영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 목포 보리마당과 서산동 일원에서 촬영을 마친 ‘뜨거운 피’는 방영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 ‘뜨거운 피’는 부산의 변두리 ‘구암’에서 나고 자란 한 남자가 생존을 위해 조직 간의 치열한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목포가 드라마·영화 등의 촬영지로 떠오른 데는 지난 1월에 신설된 미디어마케팅팀이 단초가 되었다.

신설된 미디어마케팅 전담 팀은 목포출신 인기 예능인 박나래를 목포시 홍보대사로 위촉해 목포의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렸다. 여기에 KBS 전국노래자랑,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한국인의 밥상, 진품명품, 6시 내 고향, 예능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록 등 유명 방송 프로그램을 다수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목포에 민간투자 몰려온다

장작도에 '레저+예술' 결합 대규모 리조트 개발

1천만 관광시대를 눈앞에 둔 목포시에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목포시 울도동(장작도) 일원에 레저와 예술이 결합된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이 사업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섬을 활용한 '채류형 대규모 리조트 조성'으로 관광·레저와 문화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해양관광도시 표방 이후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첫 마중물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 1,500억원 투입...2021년 하반기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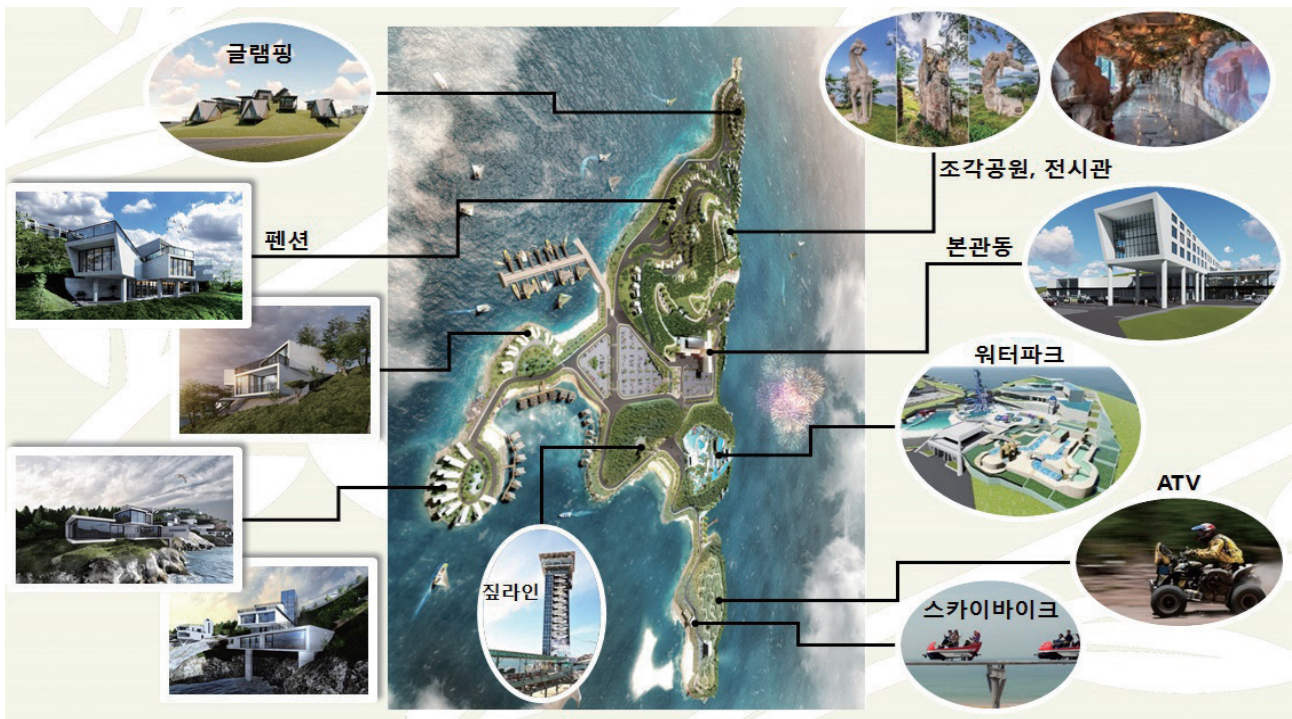
(주)여수 예술랜드는 목포시 울도동 장작도 일원(29만2748㎡)에 1,500억원을 투자해 370개 객실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대형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숙박시설 370객실(일반펜션, 수상펜션, 글램핑), 3D 트릭아트 체험관, 워터파크,

조각공원, ATV(사륜바이크), 스카이바이크 등 다양한 해양레저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조감도 참조>

내년 5월 중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 대로 착공해 2021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목포 도시관리계획(유원지) 결정을 전남도 요청해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숙박시설 부재로 가족단위 채류형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목포에 아름다운 바다와 섬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해양레저시설 복합 대형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목포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7월 25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주)여수예술랜드(대표 김현철)와 대규모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관내 6개 섬 중 3개 섬 ‘어촌뉴딜 300’ 선정 정주 여건 획기적 개선 “삶의 질 높다”

민선 7기 목포시가 관내 달리도·외달도·율도·고하도 등 6개 섬 가운데 3개 섬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 ‘달리도항·어망촌항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사업’ 선정에 이어 2020년 사업으로 응모한 ‘몸과 마음의 충전소 율도안치, 율도항 어촌뉴딜사업’이 최근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율도는 율도항·마을 정주여건 개선 등 본격 추진
달리도는 슬로우 아일랜드로 재생 “휴양 섬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전체사업비의 79%에 달해 그 어떤 사업보다 의미가 크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으로 방치됐던 낙후된 어항 인프라와 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율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총사업비 127억 원이 투입되며 접안시설 및 물량장 확장, 부잔교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 실생활

에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SOC를 확충하게 된다.

또 어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진입도로 정비 및 마을 경관조성,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바다체험낚시터 조성, 탐방로 정비 등도 추진된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달리도·외달도 슬로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게 목포시의 구상이다.

이에 앞서 목포시는 지난해 12월에도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사업에 ‘달리도항·어망촌항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사업’으로 응모해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26억원이 투입되며 접안시설 및 물량장 확장, 어구보관창고 건립, 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 실생활에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SOC를 확충한다.

목포시는 달리도항과 어망촌항을 중심으로 배후의 마을을 느린 어촌의 삶과 아름다운 섬 풍경을 테마로 한 ‘슬로우 아일랜드’로 재생하고 국민 휴양 섬으로 명소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율도어촌뉴딜300사업 조감도

근대역사문화 공간 정비 “큰 그림 그린다”

편안하고 걷기 좋은 길, 간판 정비, 지중화 사업 등 추진

목포시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근대역사문화 공간에 대한 큰 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목포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조성의 첫 단계로 향후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의 착수보고다.

근대역사문화 공간 용역 착수 ‘보존·활용’ 롤모델로

용역은 원도심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근대건축자산 및 거리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및 관리지침, 경관 가이드라인 방안 등을 도출해 향후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과 사업비 확보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근대역사문화거리

목포 원도심 일대는 지난해 8월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전국 최초 공간단위 문화재인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등록돼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문화재를 통한 지역재생활성화를 도모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 같은 큰 그림 속에 들어갈 작은 소규모 그림도 그려진다.

소규모 그림은 크게 4가지다. 1897 개항문화거리 가로조성사업, 개항문화거리 간판 개선 사업,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 사업, 근대문화사길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이다.

먼저, 개항문화 거리 가로조성은 다수 문화재와 건축 자산이 산재한 자원을 활용해 개항 당시 시대적 재현을 통해 특화시키는 것이다. 총 길이는 1.95km로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사업비는 총 33억 8000만 원이 투입된다.

또 개항문화거리 간판 개선은 오거리~평화선구점 구간 총 연장 430m에 걸쳐 간판 282개(건물 81동, 사업대상 업소 112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16일 최종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어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은 총 연장 1.9km에 달하는 3개 노선의 전신주를 없애고 땅속으로 선로를 묻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목포시가 21억5000만원, 한전 측이 17억5000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은 근대역사관 주변 보행길 2.1km를 정비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국비 10억과 시비 12억 등 총 22억이 소요된다.

20년 지난 평화광장, “경관가치 높다”

구조 개선 리모델링... 주민설명회 개최 ‘다양한 의견 수렴’

목포시가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이자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된 평화광장의 경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는 최근 평화광장 주변 관광특구 일원(상동 1157번지, 면적 8만4000㎡)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의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번 사업은 차도와 인도 등을 재조정해 총 1.2km에 폭 30m로 무장애거리를 조성하고, 6개소에 총 374대(대형 10대 포함)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주요 골자다. 사업비는 50억원(국비 9억, 도비 16억, 시비 25억)이 투입된다.

무장애 거리 조성, 주차장 확보

2단계로 나눠 총 50억 투입

특히 이 사업은 민선 7기 목포시장의 공약사업이자 역점사업인 ‘해변 맞길 30리 조성 사업’과 맞물려 관심이 쏠린다.

1단계로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8억원을 들여 대형차량 10대를 포함해 총 37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6곳에 조성한다.

이어 2단계로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사업비 32억원을 들여 총 연장 1.2km에 달하는 무장애 거리를 조성한다.

시가 이처럼 구조개선에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은 현재의 평화광장이 노점상, 불법주차, 보행자와 차량의 혼용으로 인해 교통서비스가 낮고 안전성 확보 문제 등이 줄기차게 제기된 데다 해변과 광장이 지

닌 빼어난 경관 가치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평화광장이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돼 일부 시설 노후화는 물론 심각한 주차난으로 상권이 약화되고 있어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공간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신흥동과 부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두 차례 설명회에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시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목포시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일에 상그리아비치 호텔에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의 기본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2020년도 국비 활동 전개(전해철 국회 예결위 간사 면담)

국비 7,545억원 확보! 목포 살림살이 나아진다

주민 관심 높은 144개 현안사업 추진 탄력

목포시가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국비 활동을 펼친 결과 144건에 7,545억원을 확보했다.

국회가 지난 12월 10일 2020년도 정부예산을 의결한 가운데 목포시 예산은 군특 지방이양사업 포함 7,545억원으로 이는 정부예산안 6,363억원보다 1,182억 원이 증가한 액수다. 시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김종식 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 출신 박지원·윤소하 국회의원 및 정·관계 인사들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김종식 시장은 **“확보한 국비를 지렛대 삼아 관광산업, 수산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3대 전략산업 육성 추진에 본격 착수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현안사업, 차질없이 추진됩니다

◆해경 서부정비창 구축(82억원)

해양 경비함정의 신속한 정비와 해양 경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요구되었던 사업으로 서해와 남해, 제주권의 해경 경비함정(약 200척)을 수리하는 중요 국책 사업이다. 서남해안 해상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수리 조선소 업계의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200억원)

국도77호선의 서남권 전 구간 중 유일하게 미착공된 구간인 신안 압해~목포 울도·달리도~해남 화원 구간(13.4km)를 교량 2개와 해저터널 1개소 등으로 잇는 사업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촌뉴딜 300사업인 '달리도항·외달도 어망촌항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전망이다.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4,000억원)

남해안철도(목포~보성)고속화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공사비 4,000억원이 편성됐다. 완공될 경우 부산·경남권과 이동시간이 단축돼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15억원)

여객선과 어선 이용객이 진입도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고, 공공기관 입주로 교통 혼잡 및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배후부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안전 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를 확보할 방침이다.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80억원)

대양동 목포국제축구센터 인근 171,466㎡ 부지에 2022년 제103회 전국체전의 주 경기장으로 사용할 목포종합경기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전국체전 기간 3만여명의 선수와 응원단이 방문해 1주일을 머무르면 약 3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25억원)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사업은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해 만성적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울도, 달리도, 외달도 등 도서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스마일센터 설립(30억원)

구)목포경찰서 부지에 들어서는 법무부 스타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스마일센터가 완공되면 그동안 전남지역에서는 스마일센터가 없어 '광주 스마일센터'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해변 맛길 30리 조성(10억원)

목포의 아름다운 바닷길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낭만과 멋이 있는 산책로로 단장하는 사업으로 규모 11.7km(평화광장~갯바위~삼학도~해양대학교)에 산책로, 포토존, 광장, 데크로드, 전망대 등이 조성되어 목포 관광의 새로운 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경 서부정비창 사업 예상지



목포 종합경기장 조감도



목포^愛 가을^藝 페스티벌^樂 예향목포를 뽐내다

전국 최장 문화예술축제, 재방문 의사 94%



1 목포문화재야행(9. 20.~9. 22. / 10. 26.)

※ 지난 9월 태풍으로 인해 일부 연기되었던 '2019 목포문화재 야행(夜行)'의 못다한 이야기는 10월 26일 개최

2 제19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8. 30.~9. 1.)

3 근대음악극 청춘연가(9. 28.)

4 목포항구축제(10. 4.~10. 7.)

5 골목길이 춤춘다(10. 19.~10. 20.)

목포의 가을을 흥과 낭만으로 물들였던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목포시는 예향(藝鄉) 목포의 수준높은 문화예술 역량을 관광 상품화하고자 기존에 산발적으로 개최해온 축제와 공연, 전시 등을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로 통합하고 지난 9~10월 8주간에 걸쳐 매주 금·토·일요일 신명 나는 무대를 선보였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전남 혁신박람회, 왕년에 목포축제, 목포문화재야행, 전국통기타페스티벌, 목포항구축제, 생활문화동호인한마당, 건맥 1897, 낭만비어 페스티벌, 골목길이 춤춘다, 북항 노을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87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았고 전체 방문객 중 94%가 재방문 의사를 표했다.

또, 낭만항구 목포 버스킹, 근대음악극 청춘연가, 김암기 회고전, 김현문학축전, 시낭송대회 등 다양한 공연, 전시는 목포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문화예술 관광콘텐츠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은 페스티벌 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엔 더욱더 알차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찾아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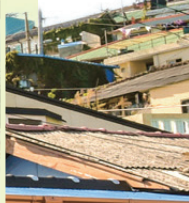
6 2019 전라남도 혁신박람회(9. 18.~9. 20.)

7 낭만비어 페스티벌(9. 27.)

8 전국통기타페스티벌(9. 28.)

9 만호동 해산물상가 건맥 1897(9. 28.)

10 북항노을축제(10. 25.~10. 26.)



흥과 낭만으로 가득했던 목포의 가을

낭만항구 목포에서! 신명나는 파시 한 판!

목포항구축제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간 총 38만명이 방문한 목포항구축제는 항구만의 특색, 맛과 근대역사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큰 이목을 끌었다. '신명나는 파시마당', '목포 9미대첩' 대동 먹거리 나눔 '1897 회덮밥' 등 목포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연 등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근대문화유산 일번지 목포로 떠나는

목포 문화재 야행(夜行)

목포 문화재 야행(夜行)은 '근대역사문화의 도시' 목포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다. 이번 야행은 'Back to the 100, 목포 1,000년의 꿈'이라는 부제 아래 과거 백년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미래 목포의 천년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리랑 플래시몹', '목포 1,000년의 꿈', '나는夜! 독립군', '夜한 위킹스트리트' 등 다양한 야행 프로그램은 7만명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신명나는 마당 축제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목포가을페스티벌의 막을 올렸던 제19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순수민간예술축제로 손꼽힌다. 3만 5천명의 관람객과 시민이 하나 되며 대성황을 이룬 이번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3일간 해외공연 9팀, 국내공연 54팀, 로컬스토리 20팀 등 총 83개팀이 마당무대에서 저마다 화려한 난장을 펼치며 감동을 선사했다.



7090 목포의 옛 도시문화를 만나는

왕년에 목포축제

지난 9월 28~29일 목포 평화광장 달맞이 공원 일대를 레트로 감성으로 가득 채운 왕년에 목포축제는 뉴트로('New'와 'Retro'의 합성어)를 축제에 접목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왕년에 먹자골목', '왕년에 의상실', '왕년에 게임존' 등 7090 목포의 옛 도시문화를 주제로 어르신들에게는 과거의 향수를, 젊은이들에게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했다.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 선정

근대역사관 2관 일원 2.1km, 21년까지 국비 10억 원 등 22억 원 투입

목포 근대역사관 2관 일원 보행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목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시가 신청한 ‘목포 근대문화사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예방 및 감축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선정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전국 확산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대상지는 목포 근대역사관2관 일원의 면적 0.43km², 연장 2.1km이며,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22억 원



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차도 미분리 구역에 보도 설치, 횡단보도 설치, 전 구간 보안등 추가 설치 등 안전시설 보완, 보행로 안전펜스 등 보행 편의시설 설치, 교통 정보제공 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건설과 ☎ 061-270-3338

행정안전부 2020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시내 오거리~평화선구점 430m 내 건물 81동 및 업소 112개소 간판개선

목포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청춘로(오거리~평화선구점, L=430m)구간이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간판개선 사업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 국비 포함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춘로 430m 구간 내 건물 81동과 업소 112개소의 간판개선 사

업을 추진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내에 디자인 실시설계용역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원도심만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업소의 개성이 반영된 아름다운 간판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모선정의 주된 이유로 주민들의 강력한 사업의지와 함께 사업대상지의 시대적·역사적·문화적 가치, 그리고 상점마다의 개성이 반영된 간판 콘셉트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비를 미리 확보해 사업 추진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점도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과 ☎ 061-270-3250



목포시-(주)코멕스카본, 목포세라믹산단 분양계약 체결

1,100여평 약 40억원 투자,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 기대



목포시의 세라믹일반산업단지에 관련 기업이 속속 들어서면서 국내 유일의 첨단 세라믹 혁신클러스터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

광진)와의 공동 기업유치 추진 결과, 지난 11월 5일 (주)코멕스카본(대표 서규식)과 1,100여평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주)코멕스카본은 1994년에 설립돼 태양전지, LED 및 반도체 제조용 카본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로서 카본 정밀가공 및 내열소재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회사 측은 내년 상반기 제품 양산라인 가동을 목표로 약 40억원 규모의 공장건설 및 장비구축을 진행할 계획으로, 목포공장 구축 이후 20여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 2025년에는 총 1,000억원 규모 매출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과 ☎ 061-270-3356

2020년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선정

문화재야행, 생생문화재 사업 2건 총 3개 사업 선정

목포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3건이 2020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문화재 야행(夜行)'과 '생생 문화재사업 2건' 등 총 3개이다.



3년 연속 선정된 '문화재 야행(夜行)'은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재 야간관람, 공연, 체험, 전시 등으로 구성된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이다. 2020년에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생생 문화재사업'은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으로 이동형 거리극인 '옥단이 잔칫집으로 마실가대!'가 4년 연속 선정되었고 '목포개항장 시간여행'은 2년 연속 선정됐다.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 차에 걸쳐 목포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거리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도시문화재과 ☎ 061-270-832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2관왕 ‘쾌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최우수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우수상 수상

목포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복지행정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지역 복지사업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목포시는 이번에 2개의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4,500만원을 받았다.

시는 올해 사회복지직을 대폭 증원하고, 간호직을 전체 23개동에 배치하면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보건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한 점과 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 아동드림터치 등 13개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11개 사업에서 5,289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우수상을 받았다. 사회복지과 ☎ 061-270-8803

2019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 ‘최우수상’

22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2,427억원 투자유치

목포시가 2019년 전라남도 시·군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라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투자유치 여건조성, 투자기업 사후관리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목포시가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올 해 목포시는 대양산단에 22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총 2,427억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536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또, 2016년 준공 이후 저조한 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양산단 활성화를 민선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분양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분양률 66%로 민선7기 들어 20%이상의 분양률 상승을 이끌어냈다.

특히, 타 시 지역 산단 분양률이 10%대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해 대양산단은 유독 높은 분양률 증가를 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유치실 ☎ 061-270-8134



시민과 함께하는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KBS 목포방송국 기능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



목포시의회 제3차 정책토론회가 9월 19일(목) 오후 2시 'KBS 목포방송국 기능조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목포시의회 김오수 기획복지위원장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목포대학교 강봉룡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KBS 목포방송국 기능조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기영 세한대학교 교수가 발제하였으며, 김종환 KBS 본사 지역혁신부장, 이준원 목포 KBS 노동조합 지부장, 신대운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 등 6명의 토론자들이 두 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7월 발표된 KBS 비상경영계획에 KBS

목포방송국의 TV 제작기능과 송출총무 인력을 KBS 광주방송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한 데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한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지역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왔던 지역방송의 통폐합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지역방송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이번 제3차 정책토론회에 이어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 밝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부의안전 심사(2019. 11. 20.)



전남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현장방문(2019. 10. 10.)

목포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폐회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9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9월 24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된 제35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결 31건, 수정가결 3건, 채택 2건 등 행정사 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포함한 총 3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으며,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과 KBS 목포방송국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휴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목포시의회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의정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의지를 밝혔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발표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8월 2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행하고 있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이어,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기업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과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을 통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일본 정부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일체의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관광자원개발위원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현장방문(2019. 10. 16.)

—도시건설위원회—



남해하수처리장 현장방문(2019. 9. 27.)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실시

용당1동 용당1동에서는 지난 9월 10일 용당1동 주민자치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생조직, 동부시장 상인회가 연합하여 마련한 백미(10kg) 120포, 베지밀 12박스를 저소득층,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목포사랑운동' 동참 캠페인 실시

용당2동 용당2동 목포사랑운동 실천위원회와 통장협의회는 지난 10월 15일 「2019 하반기 개인택시 합동 시 설점검」 대상인 개인택시 906대를 대상으로 목포사랑운동 홍보 리플렛 등을 배부하며 친절·질서·청결·나눔 「목포사랑운동」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주민들을 위한 아늑한 공간, '연다방'으로 오세요

연동 연동에서는 관내에 주민들이 부담 없이 담소를 나눌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복지센터 1층 한 칸에 다양한 차를 즐기며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인 '연다방'을 마련했다.



청호웰빙공원 단계적 꽃무릇 심기

산정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기석)에서는 지난 11월 7일 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 청호웰빙공원 일원에 자생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여하여 2018년부터 추진한 꽃무릇 중근 14,000본을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목포가을페스티벌 연산푸른음악회 개최

연산동 연산동푸른음악회추진위원회(위원장 문현진)가 주관하는 제48회, 49회 연산푸른음악회가 목포가을 페스티벌과 연계해 트루디스코장구, 7080메들리, 주민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총 2회에 걸쳐 주민 천여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끝마쳤다.



원산동실천위원회, 군산에서 목포 알리기 활동 전개

원산동 목포사랑운동 원산동실천위원회(위원장 고미순)에서는 지난 10월 9일 군산 선유도와 변산반도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목포해상케이블카, 목포관광지도, 으뜸맛집 팸플릿을 배부하며 시정 홍보 활동을 펼쳤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안전 손잡이 후원·설치

대성동 대성동 방위협의회 회원 최진배(솔마루 대표)씨가 관내 거동이 불편한 70대 이상 어르신과 지체장애인 등 63세대의 집안 곳곳(화장실, 계단 등)에 '안전 손잡이'를 제작·설치하여 목포사랑 '나눔' 운동을 몸소 실천하였다.



통장협의회, 천만 관광객 시대 위한 홍보 활동 전개

목원동 목원동 통장협의회(위원장 황갑술)는 목포역과 목포해상케이블카 북향승강장을 방문하여 친절과 미소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목포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며 목포 천만 관광객 시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랑나눔 봉사회, 어르신대상 이 미용 봉사 펼쳐

동명동 동명동 사랑나눔 봉사회(회장 최수일)에서는 사랑의 밥차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무료 이·미용 봉사를 펼치고 있다. 7명의 미용봉사자의 도움으로 월평균 8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미용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유시장 '시장통 작은 음악회' 성황

삼학동 삼학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열)가 지난 10월 11일 자유시장 내 남진야시장 무대에서 개최한 '시장통 작은 음악회'가 동 주민, 자유시장 이용객, 자생조직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해산물상가상인회, '건맥 1897' 수익금 쾌척

만호동 목포시 해산물상가상인회(회장 박창수)에서 '제1회 만호동 건해산물상가 건맥 1897 축제'를 개최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만호동 북카페 서적 구입비와 복지 사각지대 계층의 지원비로 쾌척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릴레이 시작

유달동 유달동은 지난 11월 2일 NGO 휴먼인러브와 목포 덕인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3세대에 연탄 900장(세대별 300장)을 배달하였고, 앞으로 후원 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려운 계층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께 '효(孝)짜장면 나눔' 실천

북향동 목포시 북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치영)는 지난 11월 4일 지역 어르신 350여명을 모시고 북향동 나눔가게 7호점 「복스짜장짜뽕전문점」(대표 김태봉)과 함께 효 짜장면 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다.



푸른마을요양원 위문 행사

이로동 이로동 통장협의회(회장 신점례)는 지난 10월 18일 푸른마을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가수 장서인의 사회와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를 실천하였다.



자생조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죽교동 죽교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창우)는 「비행기」의 저자인 강광민 박사를 초청하여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라'라는 주제로 자생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생조직이 죽교동을 이끌어 나갈 실질적 리더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뽕송뽕송 빨래특공대' 행복한 빨래 봉사

용해동 용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장협의회로 구성된 「뽕송뽕송 빨래특공대」가 용해사우나(최철웅 주민자치위원장)의 후원을 받아 관내 14개 경로당과 독거노인 3가구의 겨울 이불 90여 채를 깨끗하게 세탁하여 전달하는 행복한 빨래 봉사를 전개했다.



'우리지역 바로알기' 평생학습 전개

상동 상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지호)는 천만관광객 시대를 대비하여 관내 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목포역사와 이야기를 주제로 한 '우리지역 바로알기' 평생학습을 전개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에도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강의를 제공 할 예정이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살피기

하당동 하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문준포)는 올해 6월부터 매달 홀로 사는 어르신 8~10명에게 밑반찬 5종 세트와 겨울나기 속옷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삼향골 풍년문화축제 개최

삼향동 삼향동자생조직연합회(대표 이동수)는 지난 10월 25일 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제6회 삼향골 풍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우리의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나누는 주민 화합의 장을 가졌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설렁탕 나눔'

부흥동 부흥동 소재 장수옥설렁탕(대표 박병궁)에서는 관내 경로당 7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설렁탕 포장 배달 나눔 활동을 펼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장수옥 설렁탕은 매년 상·하반기 거동이 불편하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세종시 중촌동 찾아 주민자치 교류

신흥동 신흥동주민자치회(회장 정원석)는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자매결연지인 세종시 중촌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방문해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방문하는 곳 곳마다 현장 관광객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시정 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랑의 집수리' 실시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옥암동 옥암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박상락)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5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내 도배, 장판, 샷시, 전등 교체 및 안전 손잡이 설치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더불어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섰다.



바르게살기위원회, '2019 어르신 가을음악여행' 행사 개최

부주동 부주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양정승)는 가을을 맞이하여 10월 11일 옥암1차주공아파트(소장 김치갑) 광장에서 경로당 어르신과 주민 100여분을 모시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노래, 대금연주, 기타공연 등)와 간식 등을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1천만 관광객 유치 목포사랑운동 실천 그 생생한 이야기



(... ...)

목포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당시 많은 관광객이 찾았으나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았던 과거를 교훈 삼아야 한다.

(... ...)

이제는 긍정적 변화와 기회가 우리 앞에 현실이 되고 있으므로 목포사랑운동을 더욱 집중 대응해 1천만 관광객 도시를 이루어 나갑시다!

- 김종식 시장 목포사랑운동 인사말 중에서 -





'맛의 도시'에 걸맞은 선진 음식문화 조성

목포 음식을 대표하는 북항 회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버스기사 알선료 NO', '바가지요금 NO', '불친절 NO', '비위생 NO' 4가지 작전이 중점적으로 펼쳐졌다.

북항 회센터에 지회소(천막)를 설치하여 매일 바가지요금, 불친절, 비위생을 감시하고 개별 음식점을 일일이 방문하는 일사불란한 작전이었다.

특히 관광차 버스기사 알선료를 목포의 음식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관광객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가장 나쁜 관행으로 삼고 척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음식문화를 목포사랑운동 일환으로 포함해 추진한 결과로 이제는 건전한 음식문화가 본궤도에 올랐다.

친절·청결 생활화...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 위생관리 사업 평가 결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분야에서 목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입식 테이블 설치지원, 영업주와 종사자 친절 청결 캠페인 전개, 우수음식점 견학 및 자정결의대회, 상황극을 활용한 친절 위생교육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이처럼 맛의 도시 선포와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관광 목포의 대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시민의식 함양 '목포사랑운동' 실천은 계속된다.



INFOMATION

2019년 제2기분(12월) 자동차세 부과

- **과세기준일** 2019. 12. 1.
- **과세대상**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소유자 사망 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자, 연장자
- **과세기간** 2019. 7. 1.~2019. 12. 31.
- **납부기한** 2019. 12. 16.~2019. 12. 31. (16일간)
- **납부장소**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 가상계좌, 모바일, ARS 등

세정과 ☎ 061-270-8454

가정에서 먹다 남은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지)소로 가져오세요!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이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아래와 같이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방법**
 - ① 가정에 있는 폐의약품을 한 군데 모은다.
 - ② 가루약, 물약, 알약을 종류별로 분리해 포장지 제거 후 내용물만 비닐봉지에 담는다.
 - 유리 및 플라스틱 용기, 종이상자 등은 자체 분리수거 후 내용물만 배출
- **배출장소 및 시간**
 - 약국 : 인근 약국 영업시간
 - 보건소 및 하당보건지소 : 평일 09:00~18:00

목포시보건소 ☎ 061-270-8935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세요!

- **신고기간** 2020. 2. 15.까지
 - 국외부재자 신고 : 2019. 11. 17.~2020. 2. 15.
 - 재외선거인 등록 : 2017. 3. 31.~2020. 2. 15.
- **투표기간** 2020. 4. 1.~4. 6.
 -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재외선거권자**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 **신고·신청 방법**
 - 인터넷 이용(ova.nec.go.kr)
 - 공관 방문/순회 접수, 우편/전자우편 이용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안내

- **모금기간** 2019. 11. 20.~2020. 1. 31.(73일간)
- **참여대상** 전 시민, 기업, 기관, 단체 등
- **참여방법**
 - ① 언론매체 : 방문접수 및 온라인 계좌입금
 - ※ 방송(KBS, MBC, KBC, CBS, BBS) 신문사(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전남매일, 광남일보, 광주매일, 호남매일, 남도일보)
 - ② 금융기관 : 각 은행별 사랑의 계좌
 - ③ 자율모금함 : 시청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 ④ ARS기부 : ☎ 060-700-1212

사회복지과 ☎ 061-270-8892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은 이렇게!

- 기간 2019. 11. 15.(금)~2020. 3. 15.(일)
 - 동파예방방법
 - 계량기함(통) 내부를 한옷 등의 보온재로 채우기
 -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하기
 - 강설 및 한파가 지속될 때는 수도물을 약하게 틀기
 - 얼었을 때 조치요령
 - 수도계량기와 연결된 양쪽 배관을 헤어드라이어 나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이기
- ※ 수도계량기는 50℃ 이상의 물로 녹이면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계량기 동파신고 ☎ 061-272-3000, 061-270-8564

목포시 주요 관광지 이용안내

- 국내최장 목포해상케이블카
 - 운행시간(11월~2월) : 일~목 9:00~21:00
 - ※ 금, 토요일은 22시까지
 - 이용요금

구분	왕복		편도	
	대인	소인	대인	소인
일반	22,000	16,000	18,000	12,000
크리스탈	27,000	21,000	21,000	15,000

- 실시간 운행 상태 : www.mmcablecar.com

문의전화 ☎ 061-244-2600

- 목포근대역사관 1·2관
 - 운영시간 : 화~일 9:00~18:00(월요일 휴무)
 - 이용요금

구분	개인	단체	비고
성인	2,000원	1,500원	*단체 : 20명 이상
청소년·군인	1,000원	700원	*관람료 : 1·2관 관람 모두 포함
초등학생	500원	500원	

뒤통방(홍보관) 허위·과대광고 신고요령

- 허위·과대광고 유형
 - ① 전단지를 통한 경품제공 등 표시·광고
예) 제품 구매시 무료 증정 이벤트, 생활용품 저가 판매 등
 - ②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예) 일반식품에 함유된 성분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 ③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예)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비교하면서 성분 또는 함량이 같다는 표시·광고
 - 신고방법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국번없이 ☎ 1399
- 목포시 보건위생과 ☎ 061-270-8951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 3 9 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 ☎ 061-287-1390



INFOMATION

우리아이, 아픈 데 맡길 곳 없을 때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하세요!

● 서비스 내용

- 질병 완치시까지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병원 입원·퇴원 동행 돌봄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가정 내 돌봄
- 돌봄 중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보호자에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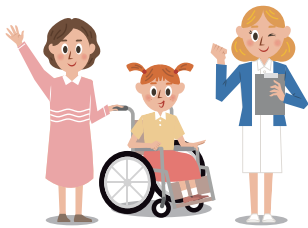
● 서비스 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감기, 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아동
- 아동의 질병감염 등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 서비스 요금 11,580원

- '나, 다, 라'형 : 5,790원(50% 정부지원)
- '가'형 : 1,737원(80%지원) 또는 5,790원(50% 지원)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61-247-2314~5



전남해바라기센터 운영 시작 안내

● 센터 명 전남해바라기센터(통합형)

※ 위치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 영광기독병원

● 운영시작 2019. 11. 1.(금) ~ / 365일 24시간

● 지원내용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 사업내용 의료지원, 상담 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평가 등

전남해바라기센터 ☎ 061-351-4375

모성보호관련 사업 안내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신청시기 : 출산일~출산 후 1년 이내 1번만 신청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신청시기 : 배우자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분할 사용 시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출산휴가(유급 10일)를 청구하는 근로자
- 지원내용 : 유급 5일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월 상한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2년)을 사용 중인 근로자
- 지원내용
- 하루 1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목포 한 달 살기, 일상이 행복이 되다

수필

남도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언니와 15박 16일의 일정으로 목포에 다녀왔다. 어려서 살았던 한옥이 그리워 기생집을 했었다는 지은 지 약 100년 된 한옥을 숙소로 정했다.

계획 없이 내려온 탓에 일단 숙소 근처부터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벽화며 인물화며 자기의 힘든 인생이야기를 써놓은 글들을 읽었다.

유달산 자락에 있는 오래된 집들과 적산가옥,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은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란 풍경과 닮아 있었다.

꾸민 거 없는 투박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정이 담겨 있었고, “뭘 볼 거 있다고 이 먼 데까지 왔냐”는 말솜에는 먼 곳에서 고생스럽게 온 것에 대한 걱정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백반집 아주머니들의 정성이 고맙고, 어디 어디가 좋으니 꼭 가보라고 알려주시는 마음 씬씀이에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예향의 도시라더니 근대역사관 야외무대의 청춘연가나 목포청년회관에서 열린 해설이 있는 근대 가요 산책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 너무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었다.

목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왔지만, 곳곳에 계신 해설사분들의 친절 한 해설을 들으면서 직접 보고, 느끼고, 참여하다 보니 목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내년에는 아이들, 손자들과 같이
한 달 살기를 다시 한번 이
행해보려 한다.

남명희(경기도 광주시)





목포 해상케이블카에서 바라본 목포 전경

이선교(연산동)



김경숙(부주동)

S N S 주부기자의 글

119 수호천사 ‘소소심 활동’ 눈길



2019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기간을 맞아 목포역과 터미널, 대형 마트 등에서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활동이 펼쳐졌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및 교육,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이론과 개인별 실습,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실전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자격을 가진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수호천사팀은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초등학교, 공공기관 및 목포시 지역축제 행사장 등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수호천사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감사하고 특히 수시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삼학도



그 옛날 창창했던 푸른 물빛
허공을 휘어잡은 쿠퍼트 화살
꿈같은 물길을 붉게 물들이고
순결한 낮은 세 마리 학이 되었다지

고대했던 이생을 떠나지 못해
눈물처럼 솟아오른 세 개의 섬
심연이 가로놓여 이루지 못한
천년이 지나도록 잠들지 않는

섬은 물으로 등이 휘어지고
땅 길이 놓여져 섬을 품었건만
먼 하늘 구름 속에서 찾아볼까
별빛 속 은하수가 되어 그리워할까

이순남 시인(연산동)



S N S 주부기자의 글

행복을 전파하는 사람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목포에 행복을 전파하고 있는 하모니카 강사가 있다.

하모니카를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준 지도 어느덧 햇수로 2년째.

배숙자 강사는 부주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하모니카 교실’을 2년 전 재능기부로 시작했다.

배숙자 강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26명의 프로그램 수강생들도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어느 순간 하모니카의 매력에 푹 빠져 이제는 재능기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배숙자 강사는 ‘배숙자 행복 실은 음악교실’을 열고 주민들에게 하모니카로 행복을 전파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눔을 몸소 실천 중인 배숙자 강사는 “하모니카 연주로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내겐 더 큰 행복이다”라고 말했다.

정미영(부주동)



목포시정소식지 무료구독 및 작품모집 안내

▶ 구독신청 방법(택 1)

- 전화(061-270-8539) 신청
 - 이메일(em7323@korea.kr) 신청(성명, 주소 기재)
 -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홈→열린행정→시정자료실→시정소식지→구독·해지 신청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우편 발송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품 모집 안내

- 참여분야 : 목포 속 이야기(사·수필·미담·사진·일러스트), 독자소감 등
 - 제출형식 : A4 1매 이내(12포인트)의 글 또는 이미지 파일(가로세로 픽셀 1,000이상)
 - 참여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우 편 : (우 58613)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 공보과 시정소식지 담당자 앞
이메일 : em7323@korea.kr
※ 지면사정상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작품이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채택된 작품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울겨울, 당신의 사랑^을
선물할 때입니다

희망2020
나눔캠페인

2019.11.20(수) ~ 2020.1.31(금)

ARS기부 ☎ 060-700-1212 기부상담 ☎ 061-902-6800 기부정보확인서비스 jn.chest.or.kr

후원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JeollaNamdo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사랑의열매
—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전문건설회관 5층)
TEL. 061-902-6800 FAX. 061-281-6133~4
<http://jn.chest.or.kr>